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레온디오스 순교자

마태오 제3주일

성 사벨, 마누일, 이즈마일 페르시아인 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 5, 1-10 / 봉독서 133
- 복음경 : 마태오 6, 22-33 / 109, B 3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레온디오스 순교자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과 힘보다 먼저 영혼의 건강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적 힘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달리며 높이 뛰고 힘이 좋은 운동선수라도 자기 자신을 뛰어넘거나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수모가 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강하고 건강한 진정한 선수였던 순교자 성 레온디오스를 우리 교회는 6월 18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디모테오1서 4:8)라고 사도 바울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우리는 흔히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곤 한다. 그리고 충족이 안 될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앞서서 오해하며 심지어는 적대시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주의는 자신은 물론 사회를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진정한 사랑을 메마르게 하고 영혼을 쪼먹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나에게도 그만큼은 해주겠지 하며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충족이 안 되면 섭섭함과 꾀씹함에 등 돌릴 때가 있다.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 서로가 부담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나누기 보다는 물질로 걸치려하는 형식적인 인간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기주의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 한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자신과 이웃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악하게 만드는 죄의 씨이기도 하다. 도덕과 윤리, 예의 범절, 양심 등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한 가치는 상실되고 나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내적으로 고립된 사고방식과 외적으로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이 남을 포용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며 적으로 만드는 철저한 이중벽을 치고 살아간다. 그런 자들은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만 좋아하고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욕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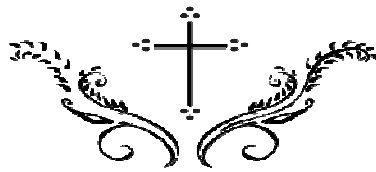
만 몰두하고 영혼의 빈곤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동물적이며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에 의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베푸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 역시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을 베푸심에 사람들에게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까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크나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바라고만 한다. 먼저 주님께 해드리기보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데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세요.” 하며 바라기만 한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사람과 사물을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정작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다. 회개에는 관심 없고 인간적인 욕구에만 관심 있을 뿐이다.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지 겸손하게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은 들으려하지 않는다. 주님께 바라지만 말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리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남에게 먼저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가라앉는 여객선



여객선 하나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승객들을 곧바로 대피시켜야만 했다. 이때 한 부부가 재빨리 구명정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가보니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남편은 아내를 밀쳐내고는 얼른 구명정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가라앉는 배에 선 채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여기서 선생님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미워요!”,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하였다. 선생님은 아직 대답을 안한 한 아이를 보고는, 아내가 남편에게 무어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하였다.:

“저는 그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아이를 잘 돌보아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놀라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니?”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는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요. 하지만 제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빠에게 한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이 대답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다음 주에 계속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길목과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이 수도원 건물 증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총 공사비는 27,000,000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 043247- 13- 601
-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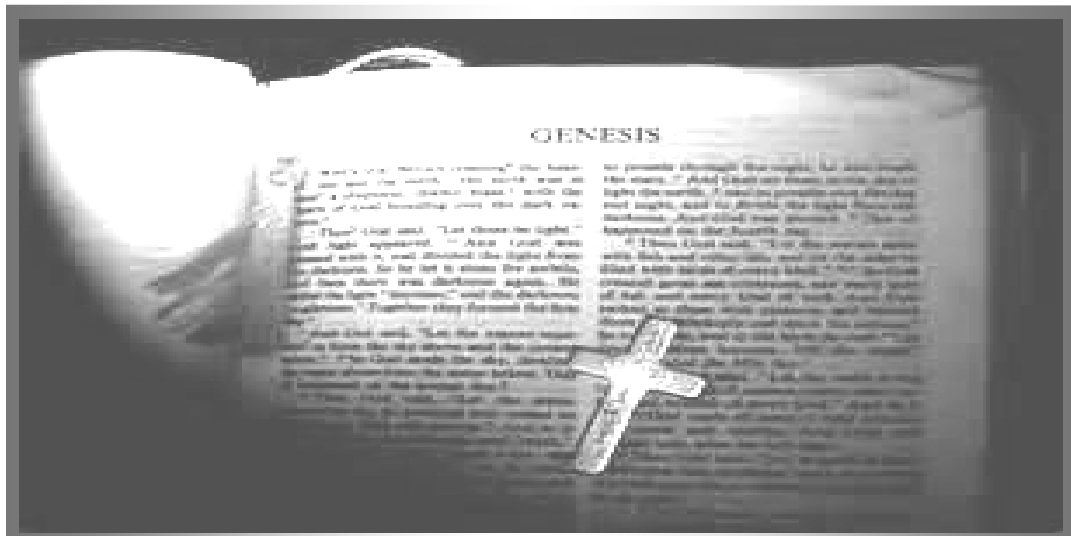
■ 성화 전시회

지난 5월 21일부터 소준 야누디스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화 수업을 종료하면서, 수업이 끝나는 6월 24일 주일 성찬예배 후 1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당 앞 마당에서 그 동안 배우면서 제작한 성화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성화 전시회는 7월 1일까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6월 10일 주일 저녁에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의 집전으로 스테파노스 신동훈 형제가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아 새롭게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스테파노스 교우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스테파노스 교우가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그리고 성모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병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 6371 / Fax (02) 365- 2698 / www.orthodoxkorea.org